

**삼성 와이브로, 동유럽 상용화 계약**



'신형 통신시장' 동유럽에서도 삼성전자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5월 24일 크로아티아 제2 유선통신 사업자인 에이치원(H1)과 차세대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WiBro)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H1은 올해 하반기 크로아티아 제2 도시인 스플리트(Split)에서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전국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상용 와이브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이어

동유럽 크로아티아까지 진출하게 됨으로써 와이브로 상용서비스가 확정된 곳은 모두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와이브로를 성공적으로 소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 본토에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와이브로 세계화에서 잇단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LG전자, 정부와 손잡고 핵심 기술인재 키운다**



LG전자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핵심 기술인재 키우기에 나섰다.

LG전자는 5월 2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HR부문장 김영기 부사장과 국제교육진흥원의 나중화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공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공대 학부과정 공동장학생 파견사업과 관련,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매년 국제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일본에서 이공계 학부 과정에 유학중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 인성과 적성 두가지 심층면접을 통해 석사 과정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18명을 선발했다.

LG전자는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될 장학금을 매월 지급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면 입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인데, 군 미필자인 경우에는 산업체 전문연구인력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공동 일본공대 학부유학생은 지난 98년 한일 정상간에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 선언의 후속작업으로서, 학술교류와 인적 관계형성으로 자연스러운 첨단 기술 도입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생활가전 상반기 결산 특별전」가져	2006.06.03
2	삼성전자, 유럽에 대규모 물류센터 출범	2006.06.02
3	삼성전자, 싱가포르 '서비스 클래스 어워드' 수상	2006.05.30
4	기업광고도 '韓流' 열풍 탄다	2006.05.29
5	삼성 와이브로, 동유럽 상용화 계약	2006.05.25
6	삼성전자, 中 CHITEC서 첨단 디지털 기술력 과시	2006.05.24
7	삼성 휴대폰 5년 연속 美 최고 브랜드	2006.05.24
8	삼성, 70개 중소 협력업체 직원 교육 나선다	2006.05.24
9	센스Q1 중국 출시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2006.05.23
10	미 여객기 실내 공기도 삼성 기술로 청정	2006.05.19
11	삼성전자 LCD TV, 세계최대 호화 유람선 탄다	2006.05.15
12	삼성전자 벨사우스 차세대 IP 단말분야 전략적 제휴	2006.05.15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TUV로부터 LCD TV RoHS 인증	2006.05.31
2	LG전자 초콜릿폰, 해외서 대박예감	2006.05.30
3	LG전자 스타벅스에 '슬립TV용 체형존' 운영	2006.05.30
4	LG전자 정부와 손잡고 핵심 기술인재 키운다	2006.05.26
5	LG전자 싸이언 이색 옥외 광고물 선보여	2006.05.25
6	LG전자 트롬 광고모델로 일반인 기용	2006.05.19
7	LG전자 대학축제기간 DMB제품 프로모션 실시	2006.05.18
8	LG전자 이라크 축구국가대표팀 2008년까지 후원	2006.05.17
9	해외주요매체 "LG전자 초콜릿폰 호평"	2006.05.16
10	LG전자 미 스킨스게임(SKINS GAME) 후원	2006.05.11
11	LG전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2006.05.10
12	LG전자 업계 첫 50인치 PDP패널 3면취 생산	2006.05.10

### 필립스, 올해 1분기 세계 LCD TV시장 점유율 1위

필립스가 올해 1~3월(4분기) 기간 동안 세계 LCD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4분기(2005.10~12)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미국 디스플레이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10인치 이상 LCD TV 세계시장 출하 대수에서 필립스가 13.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샤프는 13.1%로 3분기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1위로 부상했던 소니는 10.9%의 점유율을 기록, 4위로 떨어졌지만 대화면에 주력한 결과 출하금액에서는 수위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출하대수는 약 740만대로 3분기보다 14%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3배 늘어났다.

출하금액에서는 소니에 이어 삼성전자(13.9%), 샤프(12.7%), 필립스(11.9%)가 상위권에 들어갔다.

### KEC, 코아리버사와 전략적 제휴로 MCU 사업 진출

KEC는 국내 MCU 전문 업체인 코아리버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MCU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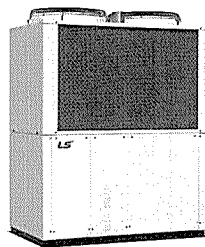
금번 양사간의 전략적 제휴는 개별반도체(Discrete) 및 전력 관리용(Power Management) 반도체분야의 전문업체인

KEC와 이미 여러 응용분야에서 그 기술력이 검증된 MCU 전문업체인 코아리버사간에 상호 보완한 사업역량 공유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고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 토종의 비메모리반도체 전문업체간에 공동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업계 최초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EC는 금번 제휴로 코아리버의 MCU 설계 기술과 모든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MCU 사업 진출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코아리버는 KEC의 국내외 판매망과 생산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영역량을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양사는 개발 및 마케팅 전략, 판매와 생산 등에 협력 체제에 대한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동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 LS전선 가스히트펌프 국내 첫 신제품 인증 획득

LS전선은 지난해 국산화한 '가스히트펌프'가 산업자원부가 부여하는 '신제품 인증(NEP)'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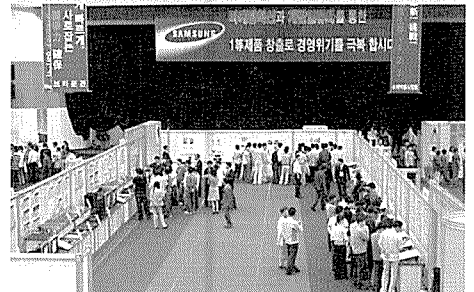
NEP 인증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신기술 적용 신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시행해 오던 KT (Korea Good Technology)·NT (New Technology)·ET (Environment Technology) 등 총 7개의 신기술 인증제

도가 올해부터 NEP와 신기술 인증(NET) 마크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LS전선의 가스히트펌프는 서류에서 종합심사에 이르는 5단계 심사과정을 통과해 국내 NEP 1호 제품으로 기록됐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각종 관급 공사 등 공공 조달 품목 입찰 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관련 부문 매출 신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S전선은 설명했다.

### SDI, 제품 경쟁력 비교·분석 전시회 개최



삼성SDI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기흥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자사 제품과 경쟁업체의 첨단 제품들을 비교하는 '제2회 제품 경쟁력 비교·분석 전시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선진 경쟁사의 제품을 임직원들이 직접 접해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해 삼성SDI 기술의 현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난 05년 제1회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전시장은 3대 육성사업인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 전지 관련 제품과 연료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유망 산업관련 제품 등 총 117개 품목으로 꾸며져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삼성SDI는 PDP, 전지, AM OLED, CRT 등 모든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제품 개발 계획과 기술개발 전략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일렉, LCD TV 전자레인지 'Plus X 어워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



대우일렉트로닉스는 LCD TV와 전자레인지가 유럽언론협회 주관 '2006 Plus X 어워드'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5월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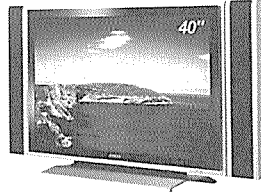
'Plus X 어워드'는 유럽언론협회(Media Society Networks)가 매년 가전, IT, 카오디오 등 8개 분야 제품에 대해 디자인, 혁신성, 환경성, 사용편의성을 평가,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상제품은 1년간 유럽 전역에서 'Plus X' 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시상에서 대우일렉은 32인치 LCD TV(모델명 DLP-3212)가 올해 최고 디자인 제품으로, 전자레인지(모델명 KOC-9N7TB)는 사용자 편의성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대우일렉 유럽사업단 강호중 상무는 "이번 수상은 대우일렉 제품이 최고 수준의 디자인력과 편의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유럽 시장에서 대우일렉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보스, 다음 콘텐츠플러그와 TV포털 사업계약 체결**

LCD TV전문기업 디보스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100% 자회사인 콘텐츠플러그와 손을 잡는다.



최근 차세대 트렌드로 급부상중인 인터넷 포털TV 시장에 공동진출하여 제품 인지도와 마케팅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디보스는 콘텐츠플러그와 디보스 TV에 내장될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제휴계약을 5월 22일 확정했다. 이번 계약으로 디보스는 인터넷 TV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되며, 콘텐츠플러그는 인터넷 TV내 포털 서비스에 적용될 콘텐츠 공급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디보스와 콘텐츠플러그는 이번 TV포털 사업계약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및 콘텐츠 수입에 따른 이익 분배에도 합의했다. 금번 계약을 통해 출시될 모델은 디지털 일체형 32인치, 40인치, 46인치로 세 모델에 적용해 출시하게 된다.

현재 디보스는 IPTV 콘텐츠의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 월 3천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 기존 모델인 인터넷 TV '비체'를 활용, Daum콘텐츠용 IPTV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대물량 공급을 위한 사용자테스트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소니, TV사업 수익성 향상 위해 2개 계열사 합병**

소니가 LCD TV용 필름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2개 부품 생산 계열사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5월 18일 보도했다.

소니는 오는 7월 1일부로 소니케미컬스와 소니미야기를 합병해 100% 자회사화하기로 결정했다. 합병사는 자본금 54억8,000만엔의 '소니 케미컬&인포메이션 디바이스'라는 사명으로 운영된다.

이번 합병은 TV사업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00명의 정규 직원을 보유한 소니케미컬스는 2005 회계연도(2005.3~2006.4)에 매출 763억엔을 기록했다. 소니미야기는 같은 기간 758억엔의 매출을 올렸으며 정규 직원은 1,800여명이다.

합병사인 소니케미컬&인포메이션디바이스는 양사의 직원 2,900여명을 대부분 승계할 것이며 2006 회계연도 2분기(4~6월) 매출이 1,800억엔대에 달할 것으로 소니 측은 추정했다.

합병사는 옵티컬과 플라로이즈 버전을 포함한 다양한 필름을 생산하게 되며 양사의 기술력을 더해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티씨정보통신, 6년 만에 흑자전환**

비티씨정보통신이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9월 결산법인인 비티씨정보통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239억5,600만원, 영업이익 1억7,2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6,400만원을 기록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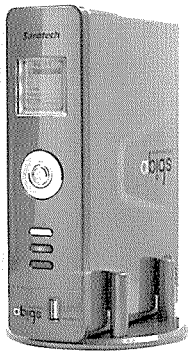
매출액은 전년 동기 340억원보다 42% 감소했으나 24억원과 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 2000년 적자로 전환한 비티씨정보통신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6년만에 처음이다.

비티씨정보통신은 올 들어 고급 모니터시장을 겨냥한 TV 겸용 모니터 '제우스' 시리즈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데다 영업채널 정비, 제품별 매출 구조개선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새로텍, 일본에 판매와 원자재 수급담당 지사 설립

새로텍이 다음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한다. 새로텍은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 올해 지난해 보다 30% 가량 많은 매출 350억원을 달성키로 했다.



새로텍은 일본 시장 내 판매와 원자재 수급을 담당할 현지 지사를 이르면 6월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5월 2일 밝혔다.

새로텍은 일본 지역 디박스 플레이어와 외장형HDD 판매가 급증해 지사를 개설키로 했다.

새로텍 일본 지사는 먼저 현지 총판과 협력은 물론 현지 시장 동향 파악을 맡는다. 또 기록 기기 매출이 꾸준한 일본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이 시장을 겨냥한 특화된 제품도 고려 중이다.

박상인 새로텍 사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면 미국 등 선진국 진입도 쉽다"라며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성과 매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코닝, 창립기념일 맞아 이웃사랑



삼성코닝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희망과 나눔의 빛'을 주제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창립기념일에 앞서 4월 21일에 시작된 '희망과 나눔의 빛'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5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삼성코닝이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노숙인의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번 축제 기간 중에 삼성코닝 61개 사내 자원봉사팀은 평소 교류해 온 42개 봉사기관 및 시설을 방문,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희망을 나눴다. 특히 삼성코닝은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네트웍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보내는 창립기념식 축하 화환을 쌀로 받아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 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 시그마컴, 중국 현지법인 설립

시그마컴이 중국 현지법인 심천시허마유한공사를 설립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중국 심천 법인은 LCD·PDP용 디스플레이 기판과 그래픽카드와 TV수신 카드 등 멀티미디어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됐다. 시그마컴은 현지 판매 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 법인 설립을 계기로 기존 국내에 국한했던 그래픽카드와 TV수신카드 등의 해외 수출도 모색키로 했다.



문원주 중국 법인장은 "이번 법인 설립은 시그마컴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빠른 시장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원주 중국 법인장은 "이번 법인 설립은 시그마컴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빠른 시장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케드콤, PCMCIA 타입의 CDMA 모듈 생산

유럽통화방식(GSM) 단말기 전문기업 케드콤이 CDMA 모듈 시장에 진출한다.

케드콤은 지난 2월 PCMCIA 타입의 CDMA 모듈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퀄컴 라이선스 보유 업체인 로즈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5월부터 WCDMA·HSDPA 등 CDMA 휴대폰 관련 모듈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앞서 케드콤은 지난 1월 연산 30만대 규모의 CDMA 모듈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케드콤은 올해 GSM 휴대폰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CDMA 방식을 확대, 연말까지 GSM과 CDMA 휴대폰 사업 규모를 3대7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바로잡습니다.  
지난 5월호 39면 회원사소식 기사 중 삼화콘덴스를 삼화전기로 바로잡습니다.